

“병원에 갇힌 노모 어찌나”…불안한 가족들 입구서 ‘발동동’

감염 폭증한 광주 효정요양병원

“세상에! 노인환자들이라 거동이 불편해 밖으로 나가시지도 못하고, 손자들 면회는 물론 일체 외부 인 접촉이 안된다는 데 무슨 확진자가 그렇게 많아요.”

3일 오전 광주 광산구 효정요양병원 입구에는 이날 오전까지 병원 내 입소 환자 중 확진자가 50명을 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환자의 보호자들이 하나 둘 모여 들었다.

요양시설이라 통제된 상태여서 환자의 얼굴을 볼 순 없었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안에만 있을 수 없어 찾아온 가족들이 대부분이었다.

구순 노모를 이곳에 입원시킨 보호자 A씨는 “가족들은 1년 가까이 어머니 얼굴조차 못 보고 있다”며 “직접 모시지 못하는 죄스러운 마음에, 이제는 확진자가 많아 혹시나 감염되시면 어찌나 하는 불안감까지 겹쳐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집구름이름 들고 온 보호자 B씨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필요한 물품을 최대한 많이 챙겨왔다”며 경비실 앞 차디찬 바닥에 반찬 기방 등을 두고 돌아섰다.

작작하기는 폐쇄된 병원 안에 일시 격리된 직원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한 요양보호사의 딸은 “요양보호사인 어머니도 질수를 바라보는 고령”이라며 “전화로는 괜찮다고 하시는데 내부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음식 꾸러미를 든 채 발을 굴렀다.

재난 문자를 받자마자 병원으로 연락해 아버지가 음성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답답한 마음에 병원을 찾은 C씨는 “어든 살이 낡은 연세에 차매를 알고 계시는 데, 흑여 이상 증세가 있더라도 표현을 못 하실텐데 걱정이 태산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날벼락 소식에 보호자 모여들어
차매 아버지 생각에 걱정 태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더니
무슨 확진자가 그렇게 많나” 분통
경비실 앞 반찬·웃 등 두고 돌아서

한 젊은 남성은 병원 직원인 동생의 양말과 치솔 등을 담은 생필품에 동생 이름을 적어 병원 정문에 놓아뒀다. 현재는 전달이 불가능해 혹시라도 나중에 동생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이 요양시설의 전체 환자는 293명이며, 의사와 간호사·직원 등 종사자는 152명에 달한다. 확진자는 대부분 입원 환자가 지내는 본관 2층에서 나왔다.

이곳 의료진과 직원 등 7명이 먼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진행된 전수검사서 이날 오전까지 환자 53명이 확진됐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몰라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요양시설 입구에는 ‘출입 통제 현수막’이 걸렸고, 확진자의 가족들은 앞으로 며칠동안 격리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환자에게 보낼 짐을 입구에 놓았다.

이들이 챙겨온 옷과 반찬은 관리동 입구에 넣어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보호자들은 통제된 요양시설 입구에서 입원에 있는 환자의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내부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통화중’이라는 안내음성만 들렸고, 휴대전화조차 연락이 되지 않아 애만 태울 수밖에 없었다.

일부 보호자는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입을 모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시 광산구 효정요양병원 입구에 3일 오전 출입 통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다. 한 보호자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더니 거동도 못하는 노인들이 병원 안에서 코로나19를 퍼뜨렸느냐”며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입원환자의 가족은 “최근 요양시설에서 확진자가 다수 나와 우려했었는데, 현실이 돼 무섭

고 불안하다”며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고 걱정했다. 다른 보호자들도 병원측이 평소와 환자 침상과 침상 사이의 거리 두기가 직원들의 방역 수칙을 제대로 관리 감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재발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이곳 효정요양병원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은 고위험시설 종사자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파악됐다. 지난해 7~12월 3차례 전수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날 31일부터 실시된 전수 검사에서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진도 가면 꼭 들러보세요... ‘세월호 기억여행 코스’

상주모임, 군과 함께 팸플릿 제작
지역의 숲·팜목 등대 등 6곳 소개

세월호를 기억할 수 있는 ‘진도 세월호 기억여행 코스’가 생겼다.

3일 세월호상주시민상주모임에 따르면 상주모임측은 진도군과 함께 진도지역 세월호 관련 장소를 소개하는 팸플릿을 제작, 배포했다.

팸플릿에는 진도지역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6곳의 여행지를 소개하면서 이들의 위치를 표시한 ‘진도 기억지도’를 새겨넣었다.

6곳의 여행지는 ▲실내체육관 ▲세월호 기억의 숲 ▲팜목등대 ▲4·16팜목기억관 ▲팜목가족식당 ▲동거차도 세월호 인양 감시·기록초소 등이다. 실내체육관은 수많은 희생자 가족이 머물렀고 연인인 5만5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했던 곳으로 소개됐다. 영화배우 오드리오헤번의 아들이 제안한 사회적기업 트리플래닛, 유가족, 시민 등이 참여해 2016년 4월 조성한 기억의 숲, 세월호 참사 당시 바다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부모를 처음 만난 장소인 4·16 팜목기억관 등도 기억여행 코스에 담겼다. 세월호 인양 과정을 감시하고 기록한 동거차도 초소도 기억여행지로 소개됐다.

팜목항 컨테이너 벽화 그리기 등 세월호 기억행



사가 지난해 코로나로 어렵게 되자 안내 팸플릿을 제작하게 됐다

김화순 예술인 행동 활동가는 “진도를 찾는 여행객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팜목 기억관과 주변 식당가에 관련 책자를 배포하는 한편,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 명소에도 비치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양제철 안전조치 위반 744건 적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노동자 안전을 위한 700건이 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음주 사고 후 도주하다 사망사고 낸 20대 운전자

20대 음주 운전자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중인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

특별안전조치
● 광양제철 노동자 안전을 위한 700건이 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시를 들이 받고 1.6km 가량 달아나다 이같은 사고

시를 들이 받고 1.6km 가량 달아나다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Table with 5 columns: 사건번호 (Case No.), 물건번호 (Property No.), 소재지 및 면적 (Location & Area), 용도 (Use),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액 (Appraisal/Min. Price), and 비고 (Remarks). Includes sections for 아파트 (Apartment), 단독주택 (Single House), and 대지/임야 (Land/Field).

Table with 5 columns: 사건번호 (Case No.), 물건번호 (Property No.), 소재지 및 면적 (Location & Area), 용도 (Use),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액 (Appraisal/Min. Price), and 비고 (Remarks).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auction.

● 경매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특별안전조치: 광양제철 노동자 안전을 위한 700건이 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